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패내성의 매개효과*

홍국진** · 한상철***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와와의 관계에서 실패내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모나 또래, 교사에 의한 정서적·물질적·평가적 지지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과 더불어,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실패내성 즉, 실패경험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반응하는 경향성이 진로성숙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며 또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매개해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D시에 소재한 중학교 2학년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12명을 제외한 388명을 최종 자료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측정도구는 황윤경(1995)이 수정하여 사용한 '사회적 지지 지각척도', 김아영(1994)이 개발한 '실패내성척도',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성숙도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를 이용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진로성숙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 둘째, 실패내성은 진로성숙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 셋째, 실패내성은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와와의 관계를 의미있게 매개한다. 즉, 실패내성은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적 지지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 겪는 많은 실패경험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사회적 지지, 실패내성

* 본 논문은 홍국진의 2014년 석사학위 논문을 재구성한 것임.

** 경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교신저자, hsch@dhu.ac.kr

I. 서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행복한 삶을 설계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매 순간마다 삶의 가치와 방향에 따라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적성을 알고 능력을 개발하여 그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적성과 흥미에 맞는 올바른 진로의 선택은 가치관과 태도, 정신적·신체적 건강 등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며(김도연, 2011), 이는 곧 자신의 삶의 과정을 설계하고 개척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career)는 전 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중요한 발달과업이지만 청소년기 동안의 합리적인 진로선택은 그들의 자아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성인기 준비 과정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한상철, 2008). Erikson(1968)에 따르면, 청소년은 직업적 체험과 사회적 경험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개인적인 흥미와 적성, 자아정체성, 지능, 대인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진로선택과 진로의사결정 등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준다(이기학, 1997).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합리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진로교육 및 지도에서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인의 인식 및 태도를 Supper(1955, 한상철, 2008 재인용)는 진로성숙도라는 개념으로 명명하고, 진로발달 단계이론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진로성숙도란 개인이 진로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모든 연속적인 과정이며, 자신의 취미와 적성, 흥미와 능력 등을 평가하고, 현실적인 상황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이기학, 1997). 청소년들의 진로지도와 관련하여 진로성숙도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면서 이희영(2003)은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연령이나 성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지능과 자아개념, 내외 통제성, 직업가치, 의사결정 등의 개인 심리적 변인, 그리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의 결혼상태, 부모의 기대수준 등을 포함하는 가족관련 변인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인들을 체계적으로 범주화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지만, 진로성숙도가 청소년 개인의 자아 발달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이나 가족관련 변인보다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변인이 더 의미있는 영

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하면, 주변 환경의 영향보다 진로에 대한 개인의 신념 및 태도, 동기, 자아개념 등이 진로성숙도에 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Cohen & Syme, 1985).

개인의 심리적 변인 가운데 지각된 사회적 지지(perceived social support)는 부모나 교사를 포함한 의미있는 타인들(significant others)과의 관계를 통해 개인에게 가치 판단 및 의사결정에 도움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자원에 대한 개인적 지각을 의미하며(Cohen & Hoberman, 1983), 이는 진로성숙도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연구되어 왔다(Kessler & McLeod, 1985, 좌은아, 2010 재인용). 구조적인 면은 개인이 맺고 있는 대인관계 구조의 객관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한 개인이 얼마나 많은 대인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반면에 기능적인 면은 개인이 맺고 있는 실제적인 대인관계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고 지각하고 있는가를 측정해서 사회적 지지 지수로 삼는다. Cohen과 Syme(1985)은 청소년의 생활 적응 및 진로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보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이것이 대처전략의 효용성 및 심리적 안녕에 더 중요한 예언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좌은아, 2010).

한수현(2003)은 타인들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적응에 도움이 되고, 좌절을 극복하도록 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도전을 강화시키며, 그리고 진로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노미순(1999) 역시 가족과 친구, 교사 등 가까운 주변인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가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과 진로성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봉환(1997)은 사회적 지지의 부족이 진로미결정과 진로 비탐색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구조적인 면의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두었을 뿐, 기능적인 면의 지각된 지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였다.

이와 함께 Caplan(1974)은 사회적 지지를 정보적 지지, 인지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Cohen과 Wills(1985)는 존경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로 분류하면서 이러한 구분이 개념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서로 독립적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박지원(1985)과 황윤경(1995) 등이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여 정서적, 평가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에 대한 청소년 개인의 지각이라고 해석하고, 결과처리에서는 지각된 지지의 전체 점수를 활용하여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그들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지만, 이는 또한 미래의 불확실성이나 모호함을 인내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 즉, 실패내성(failure tolerance)에 의해 매개될 가능성이 있다(김아영, 1997). 현대의 청소년들은 부모나 사회로부터 비교적 과잉보호를 받고 있음으로서,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거나 학습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과학습이나 진로계획, 대인관계, 일상적인 구매활동, 학원선택 등에서 실패나 좌절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자기주도적인 극복 노력이나 자신감 회복 의지보다는 무동기 상태나 학습된 무력감(learned helplessness)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곧 실패경험을 회피하거나 실패내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김아영, 주지은, 1999). 이와 같이 실패내성이 낮은 청소년들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것이며, 진로성숙도 역시 낮게 나타날 것이다.

Clifford(1988)에 따르면, 실패내성이란 실패경험 그 자체에 대해 비교적 건설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안정적인 성격 특성의 하나이면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동기변인이다. 실패경험은 학습된 무력감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를 수용하고 대처할 경우 후속과제를 수행하는데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Clifford, Kim & McDonald, 1988). 김아영(1997)은 '한국형 실패내성 척도'의 구인개념 연구에서 실패내성을 학습자의 개인차 동기변인으로 간주하고, 유사한 특성을 지닌 자기주도성이나 자기효능감 그리고 적응유연성보다 학업성취도를 더 잘 예언하고, 학습된 무력감에 대한 저항력이 더 강하다고 하였다. 실패내성은 학교 학습의 장면에서 많이 연구되었지만, 동기와 관련된 개인차 변인으로서 청소년의 위험행동 선택에도 영향을 주며(Clifford, 1988), 진로성숙도를 비롯하여 대인관계와 사회적응 등에도 광범위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실패내성은 그 자체로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동기변인의 성격을 지닌 만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매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성숙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실패내성이 양 변인의 관계를 실제로 매개하는지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진로성숙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실패내성은 진로성숙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실패내성은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간의 관계를 의미있게 매개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진로성숙도의 의미와 구성요인

Super(1955)에 따르면, 진로성숙도란 직업탐색에서 쇠퇴기까지 이르는 직업발달의 연속선상의 한 도달점 내지 발달의 정도를 말하며, 이는 정신연령이란 개념과 비슷하게 직업연령으로 생각할 수 있다(김난희, 2006 재인용). Gribbons와 Lohnes(1964)는 진로성숙을 진로선택이나 진로계획에서의 준비도의 개념으로 보았고 진로성숙 수준이 개인의 내적·외적인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Crites(1978)는 진로성숙의 개념을 진로발달 중에 만나게 되는 여러 진로문제들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며, 또래와 비교한 상대적인 직업준비도의 정도로 개념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Luzzo(1995)는 진로성숙도를 지적이고 현실적인 진로선택을 하는 능력 및 지식을 획득하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진로발달 과업에 적절하게 적용하고, 연령에 적절한 진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개인의 준비정도라고 하였다.

국내 연구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1991)에서는 진로성숙의 개념을 연속적인 발달개념으로 보되, 부분적으로 각 발달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의 수행정도를 동일한 연령집단과 비교하여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로 보고 있다. 여기서 자아의 이해란 자기의 능력, 적성, 흥미, 가치관, 신체적 조건 및 환경적 조건 등 많은 변인들을 이해하고 고려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김선희, 2012). 이기학(1997)은 진로성숙을 자신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확신, 적응 및 수행 정도라고 보았으며 진로성숙이야말로 진로발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변인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연구들을 종합하여 개인의

진로성숙도를 “개인적 특성(흥미와 능력, 적성, 가치관, 신체적 조건 등)과 직업적 특성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진로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Super(1955)는 청소년 진로성숙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차원 즉, 생애 발달단계와 과업에 대한 계획적 태도, 탐색에 대한 태도, 교육정보 및 직업정보, 의사결정 원리와 실제에 대한 지식, 현실성 차원을 하위요인으로 제시하였다(김난희, 2006 재인용). Crities(1978)는 Super가 제시한 진로성숙의 차원을 수정하고 재조직하여 자신의 진로성숙모형을 4개의 차원 즉, 직업선택의 일관성, 직업선택의 현실성, 직업선택 태도, 직업선택 능력 차원으로 제시하였다(허숙영, 2012).

한국교육개발원(1991)의 진로성숙도 검사에서는 진로성숙도를 태도와 능력의 차원으로 구분하고, 태도 차원의 하위영역을 계획성, 독립성, 결정성으로, 그리고 능력차원의 하위 영역을 직업세계의 이해, 직업선택, 의사결정으로 세분화하였다. 김봉환 등(2010)의 연구에서는 진로성숙의 하위요인을 진로발달에 근거하여 진로계획, 직업탐색, 의사결정,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기학(1997)의 진로태도성숙 검사를 선택하고 이에 따라 진로성숙을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의 다섯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2. 사회적 지지의 의미와 구성 요인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중반에 예방심리학이 대두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Cobb(1976)은 사회적 지지란 “자기 자신이 사랑과 돌봄을 받고 존중되며 가치 있다고 여겨지거나, 의사소통 관계망이나 상호 의무의 일원이라고 믿어지도록 하는 정보의 구성요소”라고 하였으며, Cohen과 Wills(1985)는 사회적 지지를 존경지지, 정보적지지, 도구적지지로 분류하면서 이러한 구분이 개념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 상황에서는 서로 독립적일 수 없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인은 사회적 지지의 제공 주체와 사회적 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제공 주체에 대한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Cobb

(1976)은 지지의 제공 주체로 가족 구성원과 직장동료를 포함시켰고, Cohen과 Syme (1985)는 사회적 지지 제공자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구분하였다. 공식적 지지 제공자는 소득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이 해당되고, 비공식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으로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의 집단이 해당된다.

Cutrona(1996)는 사회적 지지의 기능에 따라 정서적 지지, 사회통합과 관계망의 지지, 존중지지, 정보지지, 혼합지지의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Cohen과 Hoberman (1983)은 한 개인이 그가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라고 규정하고 이를 네 가지 유형 즉,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감정으로 표현되는 정서적 지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질적 지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 개인의 행동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을 제공하는 평가적 지지로 개념화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의 정의를 종합하여 박지원(1985)은 지지적 행위의 속성을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즉, 한 개인을 중심으로 하여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지지(사랑, 돌봄, 이해, 격려, 긍정, 신뢰, 관심, 칭찬 등의 태도 및 행동을 포함), 정보적 지지(사건 해결과 관계된 여러 가지 정보제공 행위를 포함), 물질적 지지(금전, 시간, 음식, 생활용품, 용역의 제공) 그리고 평가적 지지(칭찬이나 인정, 존중 등 자신을 평가해주는 태도 및 행위를 포함)라고 하였다.

3. 실패내성의 의미와 구성요인

이론적으로 실패경험이 학습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가 양립되어왔다. 반복적인 실패경험은 학습자의 동기나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을 촉진시킨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오희숙, 2002), Clifford(1984)는 건설적 실패이론을 통해 모든 실패경험이 학습자들에게 항상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서는 실패 경험에 항상 무기력을 학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학습자들이 후속 과제를 수행하는 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Clifford(1988)는 실패결과에 대해서 비교적 건설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경향성을 뜻하는 실패내성(failure tolerance)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안정적인 성격 특성의 하나이면서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패내성은 학업성취 정도를 가장 잘 예언하는 동기변인으로 작용한다(김아영, 1997).

김아영(1994)은 Clifford(1988)의 척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변안, 수정, 적용하여 '한국형 실패내성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 변인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형 실패내성 척도에 대한 구성 개념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리하여 김아영(1997)은 실패내성을 특정 상황에서 유용한 개인차 동기변인으로 간주하고, 학업성취 정도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보았다. 실패내성이 개인의 성격이나 가치관 또는 태도의 한 단면을 나타내는 동기변인이며 발달과정의 어느 시기에 형성되어 그 경향성을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하는 특성이라고 보았을 때, 이에 대한 연구는 분명 중요한 교육적 함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오희숙, 2002). 특히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같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개인적 판단능력의 성숙도를 연구할 때 이는 중요한 예측변인 또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실패에 대한 내성은 실패상황에 노출되고 난 뒤 피험자들의 감정적인 반응과 행동적인 반응을 잘 예언해 주었고, 실패내성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실패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로 임하였음이 밝혀졌다(Clifford et al., 1988). 그리고 김아영(1997)이 개발한 실패내성 척도에는 실패경험 후의 감정적 반응(feeling), 행동적 반응(action), 그리고 개인의 일반적 과제 난이도에 대한 선호수준이 포함되었다. 실패내성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연구로서, Clifford(1988)는 일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어려운 과제를 더 선호하며, 남녀 학생 모두 실패 후에는 부정적 감정 반응을 보이지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실패를 만회하려 하고 장래를 위해 더 건설적으로 대응한다고 하였다(조미영, 2012 재인용). 김아영(1994)의 연구에서도 실패 후의 감정요인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중운과 김유진(2009)의 연구에서는 실패내성 전체수준에서는 남학생이, 하위요인 중 행동 요인은 여학생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심리적 변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로서, 조미영(2012)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실패내성, 학교적응 사이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고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실패내성이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 사이를 완전 매개한다고 하였다. 채호숙(2008)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차은주(2010)의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 실패내성, 학교생활적응 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실패내성과 관련하여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변인(연령, 성별, 가족 수준 등)과 심리학적 변인(자아탄력성, 학교적응, 자기효능감 등)에 관련 된 연구들은 다수 있으나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패내성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교 2학년 남녀 청소년 400명이며, 이들은 D시의 3개 학교에서 임의 표집되었다. 이들 가운데 12명의 불성실한 응답자(반응 누락, 일률적인 반응 등)는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88명(남 196명)을 자료처리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2. 측정도구

1)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지 척도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척도를 황윤경(1995)이 수정한 것이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는 정서적 지지(7문항), 평가적 지지(6문항), 정보적 지지(6문항), 물질적 지지(5문항) 등 4가지 하위 영역을 포함하며,

총 24개 문항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68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정서적지지 .925, 평가적지지 .899, 정보적지지 .907, 물질적지지 .880이다.

2) 실패내성 척도

실패내성 척도는 Clifford(1988)가 제작한 척도(Academic Failure Tolerance Scale)를 바탕으로 김아영(1994)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실패내성 척도”이다. 이 척도는 과제선호 수준, 감정, 행동 등 3개의 하위 요인 각각에 8개 문항씩 총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Likert식 5단계 척도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0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과제선호수준 .868, 감정 .872, 행동 .706이다.

3) 진로성숙도 척도

진로성숙도는 이기학(1997)이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해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진로성숙도 검사는 자아와 직업에 대한 개인적 이해와 선호도를 바탕으로 개인의 일생을 결정하는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총 4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방법은 Likert식 5단계 평정척도이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5이다.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결정성 .878, 목적성 .878, 확신성 .814, 준비성 .807, 독립성 .796이다.

3.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실패내성, 진로성숙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관련 변인 간 상관분석

	사회적 지지	실패내성
실패내성	.297***	
진로성숙	.290***	.343***

*** $p < .001$

표 1에서와 같이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실패내성, 진로성숙 모두 상호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 회귀분석

변 수	B	SE	β	t	p
(상수)	118.565	6.348		18.678	.000
사회적 지지	.415	.070	.290	5.964	.000

$R^2 = .084$ $Adj.R^2 = .082$ $F = 35.566$ $p = .000$

위의 표 2에 의하면 회귀모형은 의미가 있으며($F=35.566, p<.001$), 결정계수(R^2)는 .084로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8.4%정도이다.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5.964, p<.001$),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β)은 .290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3. 실패내성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실패내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청소년의 실패내성에 따른 진로성숙도 회귀분석

변 수	B	SE	β	t	p
(상수)	109.672	6.536		16.779	.000
실패내성	.654	.091	.343	7.164	.000

$R^2 = .117$ $Adj.R^2 = .115$ $F = 51.324$ $p = .000$

위의 표 3에 의하면 회귀모형은 의미가 있으며($F=51.324, p<.001$), 결정계수(R^2)는 .117로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1.7%정도이다. 청소년의 실패내성은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7.164, p<.001$), 실패내성의 영향력(β)은 .343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패내성이 높을수록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4.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에 대한 실패내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에 대한 실패내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실패내성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β)	t	F	R ²	Adj. R ²
		B	표준 오차					
1단계 (독립-종속)	사회적지지 -진로성숙	.415	.070	.290	5.964***	35.566***	.084	.082
2단계 (매개-종속)	실패내성 -진로성숙	.654	.091	.343	7.164***	51.324***	.117	.115
3단계 (독립,매개-종속)	사회적지지 -진로성숙	.296	.070	.207	4.221***	35.690***	.156	.152
	실패내성 -진로성숙	.536	.094	.281	5.734***			

종속변인 : 진로성숙 *** $p < .001$

사회적 지지가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실패내성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단계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를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어야 하며(1단계), 둘째,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2단계). 셋째, 3단계에서 매개변인을 추가했을 때 독립변인의 효과(β)가 줄어든다.

이상에서 제시한 단계에 따라 매개변인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의 독립변인인 사회적 지지는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beta = .290, t = 5.964, p < .001$) 첫 번째 조건이 만족되었다. 또한 실패내성은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beta = .343, t = 7.164, p < .001$) 두 번째 조건도 만족 되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을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패내성을 매개변인으로 추가했을 때 진로성숙도에 대한 설명력은 15.6%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β)은 줄어들었다($\beta = .290 \rightarrow .207$).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실패내성은 의미있는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패내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가설에 따라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진로성숙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도연(2011)의 연구, 사회적 지지가 초등학생의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박지원(1985)의 연구,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성숙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한수현(2003)의 연구와 일치한다. 송재영(2003)의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 중 정보적, 물질적 지지만이 진로성숙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평가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 모두가 진로성숙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청소년들의 성숙된 진로의식 함양을 위해 사회적 환경 내에서 의미있는 타인(부모, 교사, 친구 등)이 정서적, 평가적, 정보적, 물질적인 다양한 유형으로 관심어린 지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청소년 자신이 이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실패내성과 의미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순으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이 높은 실패내성을 보인다는 한은숙과 김성일(2004)의 연구, 성취지향적이면서 동시에 수용적이며 애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실패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김종운과 김유진(2009)의 연구와 일치하며, 사회적 지지가 실패내성이 예측하는 학습된 무기력과 부적상관을 나타낸다는 최유진(2007)의 연구와 그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할 때, 실패내성을 기르고 학습된 무기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 그 중에서도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의 칭찬이나 인정, 존중 등 청소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는 태도 및 행위를 포함하는 평가적 지지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실패내성은 진로성숙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과 진로성숙도 간의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여주고 있는 김은영(2009)의 연구와 여대생이 지각한 학습된 무기력과 진로태도성숙 간의 부적상관을 보여주는 이은지(2012)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실패내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학습된 무기력감에도 덜 빠지는 것을 볼 때(김아영, 주지은, 1999), 실패내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낮은 학습된 무기력감을 보이고 높은 진로성숙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의 관계보다 실패내성과 진로성숙의 관련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실패내성의 진로관련요인과의 연구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넷째, 실패내성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패내성을 매개변인으로 추가하였을 때 독립변인 즉,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매개효과가 유의미함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를 학업적 실패내성이 매개한다는 조미영(2012)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통제변인(예, 성별, 학교급, 가정의 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통계분석에서 매개모형의 설명력이 매우 낮게 나타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전제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진로성숙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 둘째, 실패내성은 진로성숙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 셋째,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에서 실패내성은 의미있는 매개효과가 있다.

본 연구의 결론에 근거할 때, 청소년의 진로교육은 직업정보 소개나 개인의 직업적 성검사, 흥미검사 등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로성숙도를 함양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의미있는 타인들로부터의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평가적 지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실패내성을 길러 줌으로써 진로가 갖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국 그들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켜 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난희 (2006). **시설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영향 요인 비교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도연 (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봉환, 이제경, 유현실, 황태향, 공윤정, 손진희 외 (2010). **진로상담이론** (pp. 91-96). 서울: 학지사.
- 김선희 (2012). **초등학생 진로교육 프로그램: 활동중심과 수업중심 효과 비교**.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아영 (1994). 한국형 학업적 실패에 대한 내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32(3), 59-75.
- 김아영 (1997). 학업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변인 연구. **한국교육심리학회지**, 11(1), 1-19.
- 김아영, 박인영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9(1), 95-123.
- 김아영, 주지은 (1999). 학습된 무기력, 실패내성과 학업성취간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29, 157-176.
- 김은영 (2009).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학습된 무기력 및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종운, 김유진 (2009).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등학생의 학구적 실패내성 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0(1), 445-468.
- 노미순 (1999).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송재영 (2003).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희숙 (2002).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와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지 (2012). **여대생이 지각한 학습된 무기력과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희영 (2003). **진로성숙과 상담** (pp. 119-140). 서울: 학지사.
- 조미영 (2012).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학업적 실패내성의 매개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좌은아 (2010).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인식 및 정서표현성이 학업중단행동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차은주 (2010). **인문계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실패내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채호숙 (2008).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실패내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유진 (2007). **사회적 지지와 학업능력지각이 무기력, 열등감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교육개발원 (1991).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RR91-5).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상철 (2008). **청소년학: 청소년이해와 지도**. 서울: 학지사.
- 한수현 (2003).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은숙, 김성일 (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구적 실패내성의 관계. **한국교육학연구**, 10(2), 177-202.
- 허숙영 (2012).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미결정 및 진로성숙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윤경 (1995). **청소년 또래집단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성숙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ron, R. M.,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Caplan, G. (1974). *Support systems & community mental health: Lectures on concept development*. New York: Behavioral Publications.

- Clifford, M. M. (1984). Thought on a theory of constructive failure. *Educational Psychologist, 19*(2), 108-120.
- Clifford, M. M. (1988). Failure tolerance and risk taking in ten-to-twelve year old student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8*, 15-27.
- Clifford, M. M., Kim, A., & McDonald, B. A. (1988). Responses to failure as influenced by task attribution, outcome attribution, and failure toleranc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57*, 19-37.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ohen, S., & Syme, S. L. (1985). Issues in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social support. In S. Cohen, & S. L. Syme (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Orlando, FL: Academic Press.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rites, J. O. (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Monterey, CA: McGraw-Hill.
- Cutrona, D. E. (1996). *Social support in couples: Marriage as a resource in times of stress*. Thousand Oaks, CA: Sage.
- Cutrona, D. E., & Russell, D. W. (1990). Type of social support and specific stress: Toward a theory of optimal matching. In B. R. Sarason, & I. G. Pierce (Eds.), *Social support: An interactional view* (pp. 319-366). New York: John Wiley.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Gribbons, W. D., & Lohnes, P. R. (1964). Relationships among measures of readiness for vocational plan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13-20.
- Luzzo, D. (1995) Gender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perceived barriers in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319-325.
- Super, D. E., & Nevill, D. D. (1984). Work role salience as a determinants of career maturity in highschool stud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5*, 30-44.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failure-toler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maturity, as perceived by adolescents

Hong, Gukjin* · Han, Sangchul**

The aim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failure-toler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maturity, as perceived by adolescents. Our hypothesis was as follows: First, social support, as perceived by adolescents, will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career maturity. Second, failure-tolerance will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career maturity. Third, failure-tolerance will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s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career maturity.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mprised 400 students of the second grade in a middle school in D city.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388 questionnaires, except for 12 questionnaires which produced unreliable answers, and were then subject to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Baron and Kenny(1986) model. The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s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career maturity, with more social support, as it is perceived adolescents, having a positive effect on career maturity. Second, failure-tolerance showed a positive role in career maturity. This suggests that failure-tolerance has a positive impact on career maturity. Third, failure-tolerance was revealed to have a positiv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 social support, as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career maturit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discussed based on prior studies and were used to create suggestions and ideas for improving the career education of adolescents.

Key Words : career maturity, social support, failure tolerance, mediating effects

투고일 : 2014. 5. 21, 심사일 : 2014. 8. 1, 심사완료일 : 2014. 8. 11

* Gyungbuk Youth Counseling & Welfare Center

** Department of Adolescent Education & Counseling, Daegu Haany University